

장흥군 “벼 흑명나방방제 철저히 하세요”

장마·태풍 이후 고온현상 지속...피해 커져

“기본방제만으로 미흡...신속 추가 방제 당부”

장흥군은 지난 장마와 태풍 이후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흑명나방으로 인한 벼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신속한 추가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벼 병해충 집중예찰 결과, 흑명나방 피해면적이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발생해, 이모작는, 가루쌀 생산단지, 질소과용 필지 피해가 심해져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출수 불량, 등숙률 저하 등 큰 피해가 예상돼 철저한 방제를 강조했다.

비래해충인 흑명나방은 6월중순 ~ 7월 하순경 장마전선을 타고 중국에서 비래해 우리나라 전역, 특히 해안 인접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흑명나방으로 인한 피해 증상은 유충이 벼 잎을 세로로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갹아 먹어 표피만 남아 백색으로 변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지엽 피해로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 후에도 성충 및 유충 밀도가 높으면 7 ~ 10일 간격으로 2회정도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여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긴 장마로 인해 비래해충 급증과 고온다습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기본방제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 농가의 추



가 방제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병해충 수시 예찰과 현장기술지원을 강화

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지난 3월 24일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 현장 방문위원회.

해남군 북일면 일대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추진 나선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규모의 장고형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는 북일면 일대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사적 지정 대상 고분은 방산리 장고봉고분과 독수리봉 고분을 비롯해 신월리 방대형고분, 내동리 발전고분, 용일리 용운고분 등으로 모두 해남군 북일면 일원에 산재해 있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각 고분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가사적 지정 추진으로 역사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사결과 북일면 일대의 고분은 전방후원형, 원형, 방형, 증석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목관묘, 석관묘, 석실묘 등 시기별 특징적인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북일면 일대에는 형태와 매장 주체 시설 등에 왜의 요소를 가진 고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바닷길을 관장하는 현지 집단에 의해 4세기에 축조된 독수리봉고분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한-백제에 이르는 도제의 변천사에 따라 한중일 대외교섭사가 재조명된 것은 물론 해남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현지집단에 의해 선택적 채용·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북일면 고분군은 전방후원형인 장고봉고분, 분구 전체를 할석(갯 돌)으로 덮은 신월리고분, 분구에 2열의 증석(봉토의 위쪽에 한두 겹만으로 얇게 퍼서 깎 돌)을 한 발전고분, 산 정상부에 위치한 독수리봉고분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고분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제의행위의 흔적들과 유물을 통해 북일면 일대 현지집단이 해로를 통해 영산강유역을 물론 남해안 일대, 백제, 가야, 일본 열도 등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온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일면 일대 고분군의 성격을 밝히고 국가사적 지정 등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해남지역의 고대문화’를 주제로 한 최성락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북일면 일대 고분의 성격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공약 및 핵심 과제 점검...‘추진력 높인다’

민선 8기 공약 및 군정 핵심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및 군정 핵심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신우철 군수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공약 사항에 포함된 군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은 3대 전략, 9개 분야, 총 7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2017년부터 준비해왔던 군 역점 사업으로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해외시장 개척, 국가 어항 개발, 도시재생, 고령자 복지주택 및 가족센터 건립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공약 사항에 포함된 군 핵심 과제는 완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는 완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로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의료, 관광, 농수축산업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단체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군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해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약 이행 제고 방안을 도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정책방향 공유

추진위원 등 위촉 및 회의 가져

강진군이 지난 22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및 이행하고 아동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갈 방향을 설정했다.

강진군은 서순철 부군수(위원장) 및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



회 유경숙 부의장 ▲강진경찰서 김경진 경위 ▲강진교육지원청 김순오 장학사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정진정 관장 ▲강진군청 소년수련관 김지현 관장 ▲강진군가족센터 조성옥 센터장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이수민 센터장 ▲강진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민정 회장 ▲강진군어린이집연합회 이영미 회장 ▲강진학부모연합회 김순아 회장 ▲강진군청소년지도위원회 정영수 회장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재영 회장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전세사기 방지’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대상...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문의는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061-540-3872.

진도=조성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